

## 2021 농림어업 고용 동향과 시사점

마상진

### 요약

#### 2021년에도 농림어업 취업자 증가세 지속

- 2021년 농림어업 취업자 수는 145.8만 명으로 지난해 대비 1.3만여 명 증가. 2017년 이후 5년 연속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음.
- 생산 연령 인구의 감소 및 2년째 지속된 코로나19 위기, 비농림어업 분야 고용이 개선되는 상황에서도 증가세를 이어간 농림어업 분야 취업자 수의 다양한 특징을 분석

#### 60대, 경영주, 농가, 농어촌 중심의 농림어업 취업자 증가

- 2021년 농림어업 취업자 변화 동향의 특징을 보면 전년 대비 연령대별로는 60대 이상에서 5년 연속 증가세를 보였고, 30대 이하는 지난 4년의 증가세를 잇지 못하고 감소세로 전환하였고, 40~50대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감소함.
- 종사상 지위로 보면 경영주는 2017년 이후 증가세를 이어갔지만, 가족종사자는 2018년 이후 지난 3년간의 증가세를 잇지 못하고 감소세로 전환, 임금근로자는 2019년 이후 감소세임. 가구 형태별로는 농가, 지역별로는 농어촌 지역의 농림어업 취업자가 증가하고 있었음.
- 농림어업 취업자 증감에 대한 타 산업 고용 및 인구 요인의 영향을 제거하고자 취업자 증감을 산업별로 인구수 및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하는 노동 공급과 노동 수요로 분해하여 분석한 결과, 제조업, 서비스업 등 비농림어업 분야 노동 수요는 증가한 반면 농림어업 분야 노동 수요는 감소하였음.

#### 비농림어업 분야 노동 수요 증가로 인해 농림어업 노동시장 선택 감소 및 농림어업 노동 공급 형태의 변화 전망

- 농업생산 증가 및 농가의 고질적인 인력 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농림어업 노동 수요 감소가 나타난 것은 비농림어업 분야 대비 상대적 노동 선택이 감소한 것이 더 크게 작용한 것으로 추정됨.
- 최근 비농림어업 분야 취업 활성화에 따라 농림어업 분야 노동 공급이 경영주 중심의 자가노동 및 임시, 일용 등 비상용 근로자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음.
- 고령화에 따른 전체 인구구조의 변화는 농림어업 취업자 연령구조에도 영향을 미쳐, 30대 이하 및 40~50대 농림어업 취업자는 향후에도 감소할 전망이다.
- 향후 농림어업 노동의 질적 제고 및 농림어업 산업 특성을 반영한 노동 수급 정책 수립이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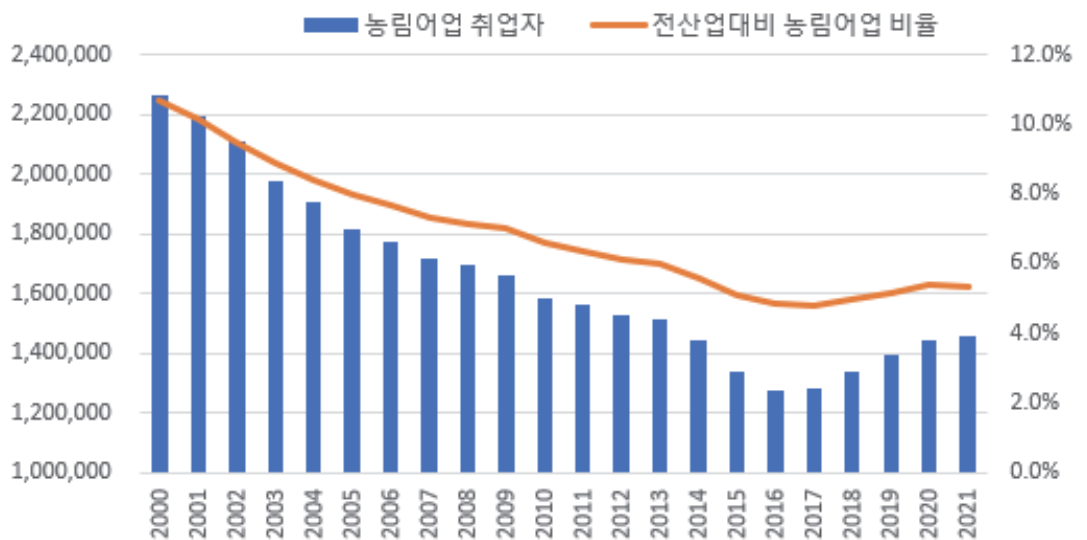
## 01

## 2021 농림어업 고용 현황 개요

## 2021년 농림어업 취업자 전년 대비 1.3만 명 증가

- 통계청의 2021년 경제활동인구조사에 의하면 농림어업 취업자는 145.8만 명으로 전년 대비 1.3만 명 증가하였음.
- 전체 산업 취업자(2,727만 명) 대비 농림어업 취업자는 5.35%로 전년(5.37%)과 큰 변화가 없었음 (2016년 4.8%에서 2020년 5.4%로 4년 연속 상승한 이후 정체)<그림 1>.

〈그림 1〉 농림어업 취업자 및 전 산업 대비 비율 변화: 2000~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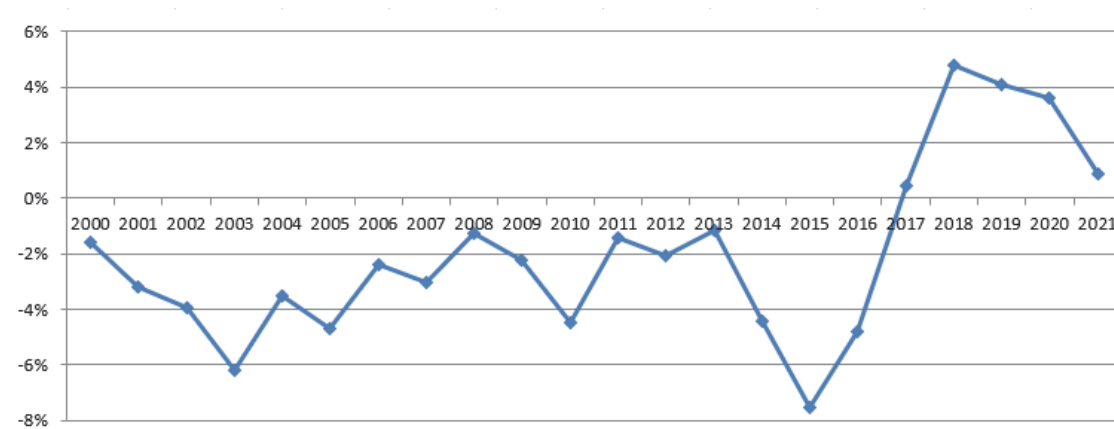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각 연도). 경제활동인구조사.

## 2017년 이후 5년 연속 증가세 이어가

- 2000년대 이후 농림어업 취업자 변화를 보면 2016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해오던 추세에서 벗어나 2017년 이후 5년 연속 증가하였지만(2016년 127.3만 명 → 2017년 127.9만 명 → 2018년 134.0만 명 → 2019년 139.5만 명 → 2020년 144.5만 명 → 2021년에 145.8만 명)(최근 5년 평균 전년 대비 3.7만 명 증가), 지난 4년간의 상승이 조정기에 접어든 추세임<그림 2>.

〈그림 2〉 농림어업 취업자 전년 대비 변화율: 2000~2021



자료: 통계청(각 연도), 경제활동인구조사.

### 농림어업 취업자 변화의 다양한 양상 분석

- 생산 연령 인구(15~64세)의 감소(2017년 3,686만 명으로 정점) 그리고 2년째 지속된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2021년부터 개선되는 고용 상황(2019년 대비 2020년 취업자는 21.8만 명 감소하였지만, 2021년에는 36.8만 명이 증가)에서도, 지난 4년간의 증가세를 이어간 2021년 농림어업 분야 취업자 변화의 다양한 특징을 경제활동인구 원자료 분석을 바탕으로 파악하고자 하였음.

##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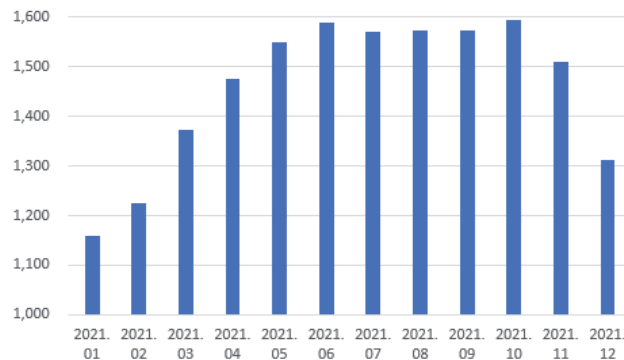
## 농림어업 고용 변화 특징 분석

## 1분기 감소, 2분기부터 취업자 증가

- 월별 취업자 수 변화를 보면, 1월이 116만 명으로 가장 적었고, 10월이 159만 명으로 가장 많았음 (농림어업 노동의 계절성으로 전형적인 M자 곡선을 보임)〈그림 3〉. 전년 동기와 비교해 1, 3, 4, 5월은 줄었지만, 2월과 6월 이후 계속 증가 추세를 유지함. 분기별로는 1분기에 감소, 2분기 이후 증가세 유지〈그림 4〉.

〈그림 3〉 농림어업 취업자 월별 변화: 2021. 1.~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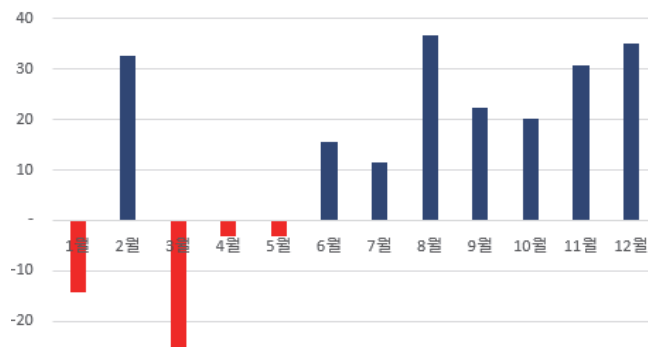
단위: 천 명



자료: 통계청(2021). 경제활동인구조사.

〈그림 4〉 농림어업 취업자 전년 동기 대비 월별 변화: 2021

단위: 천 명



자료: 통계청(2021). 경제활동인구조사.

### 60대 이상 연령층 증가세, 30대 이하 및 40~50대에서 감소세

- 농림어업 취업자를 연령대별로 보면 30대 이하 9.1만 명(6.2%), 40~50대 36.2만 명(24.8%), 60대 이상 100.5만 명(68.9%)이었음<표 1>. 전년 대비 30대 이하에서 0.6만 명, 40~50대에서 3.4만 명 감소한 반면, 60대 이상에서 5.4만 명 증가함<그림 5>.
- 60대 이상 연령대의 증가세는 2017년 이후 계속 이어졌지만(전년 대비 +5.4만 명), 30대 이하는 지난 4년의 증가세를 잇지 못하고 감소세로 전환하였고(전년 대비 -0.6만 명), 40~50대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감소함(전년 대비 -3.4만 명).

<표 1> 연령대별 농림어업 취업자 변화: 2010~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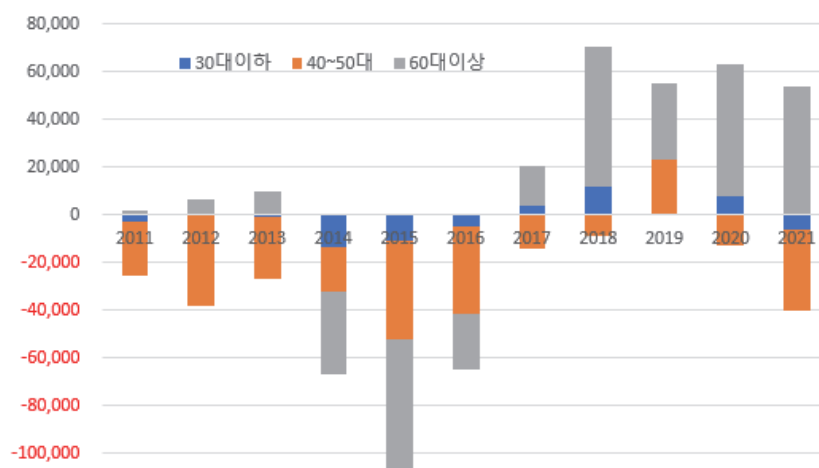
단위: 천 명

연도	연령					전체
	임금 근로자			경영주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2010	33	74	205	388	886	1,586
2011	27	77	187	384	888	1,563
2012	36	69	161	371	894	1,530
2013	37	66	136	370	904	1,513
2014	34	56	134	353	869	1,446
2015	29	50	128	318	813	1,337
2016	23	52	119	289	789	1,272
2017	23	55	112	282	806	1,279
2018	24	65	105	280	865	1,340
2019	35	54	121	288	896	1,395
2020	36	61	122	274	952	1,445
2021	31	60	108	254	1,005	1,458

자료: 통계청(각 연도). 경제활동인구조사.

<그림 5> 농림어업 취업자 연령대별 전년 대비 변화: 2011~2021

단위: 명



자료: 통계청(각 연도). 경제활동인구조사.

### 경영주 증가, 가족 종사자 및 임금 근로자 감소

- 종사상 지위별 농림어업 취업자를 보면, 경영주가 94.2만 명(64.6%)(고용 5.6만 명, 무고용 88.6만 명), 임금근로자가 12.1만 명(8.3%)(상용 3.0만 명, 임시 4.1만 명, 일용 5.0만 명), 가족종사자가 39.5만 명(27.1%)이었음<표 2>.
- 경영주는 2017년 이후 증가세를 이어갔는데(전년 대비 +2.2만 명), 가족종사자는 2018년 이후 지난 3년간의 증가세를 잇지 못하고 감소세로 전환됨(전년 대비 -0.5만 명). 임금근로자는 2019년 이후 감소세임(전년 대비 -0.4만 명)<그림 6>.

〈표 2〉 종사상 지위별 농림어업 취업자 변화: 2010~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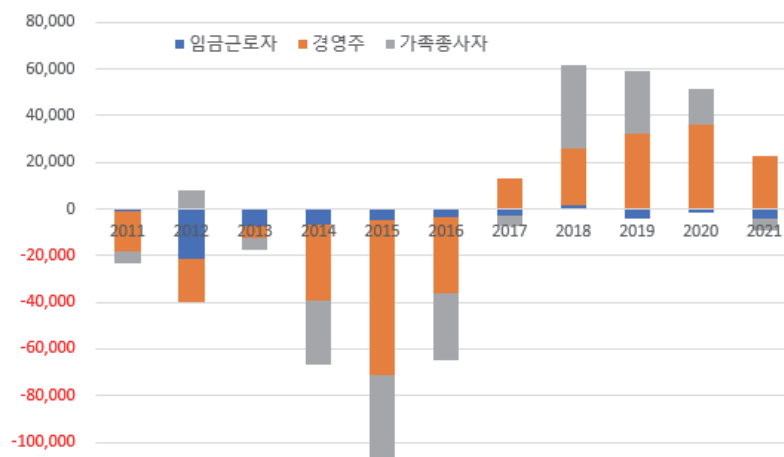
단위: 천 명

연도	종사상 지위						전체
	임금 근로자			경영주		무급가족 종사자	
	상용	임시	일용	고용	무고용		
2010	22.6	43.6	110.4	54.8	931.7	423.3	1,586.3
2011	26.8	36.8	112.1	49.9	919.4	417.8	1,562.7
2012	24.5	35.4	94.6	43.5	906.8	425.8	1,530.5
2013	28.4	33.4	85.4	49.0	896.2	420.8	1,513.1
2014	32.1	26.4	82.1	45.4	866.6	393.4	1,446.1
2015	22.9	29.7	83.3	53.6	792.2	355.6	1,337.4
2016	22.3	33.8	76.4	42.4	770.8	326.8	1,272.5
2017	28.6	32.8	68.1	38.7	787.8	322.6	1,278.6
2018	33.4	35.6	62.0	49.4	801.3	358.4	1,340.2
2019	33.8	39.6	53.6	61.3	821.5	385.1	1,394.9
2020	38.1	39.2	48.4	59.7	859.4	400.3	1,445.1
2021	30.0	40.7	50.5	55.5	886.2	395.4	1,458.3

자료: 통계청(각 연도). 경제활동인구조사.

〈그림 6〉 농림어업 취업자 종사상 지위별 전년 대비 변화: 2011~2021

단위: 명



자료: 통계청(각 연도). 경제활동인구조사.

### 농가, 농어촌 취업자는 증가한 반면, 비농가, 도시 취업자는 감소

- 농림어업 취업자를 농가, 비농가로 나누어보면, 농가 124.0만 명(85.0%), 비농가 21.8만 명(15.0%)이었음. 농림어업 취업자 중에 농가 취업자는 증가(전년 대비 +2.2만 명)한 반면, 비농가 취업자는 감소함(전년 대비 -0.9만 명)〈표 3〉, 〈그림 7〉.
- 지역별 농림어업 취업자는 농어촌이 115.6만 명(79.2%), 도시가 30.3만 명(20.8%)이었음. 도시 농림어업 취업자는 감소(전년 대비 -0.2만 명)한 반면, 농어촌 농림어업 취업자는 증가함(전년 대비 +1.5만 명).

〈표 3〉 가구 형태·지역 유형별 농림어업 취업자 변화: 2010~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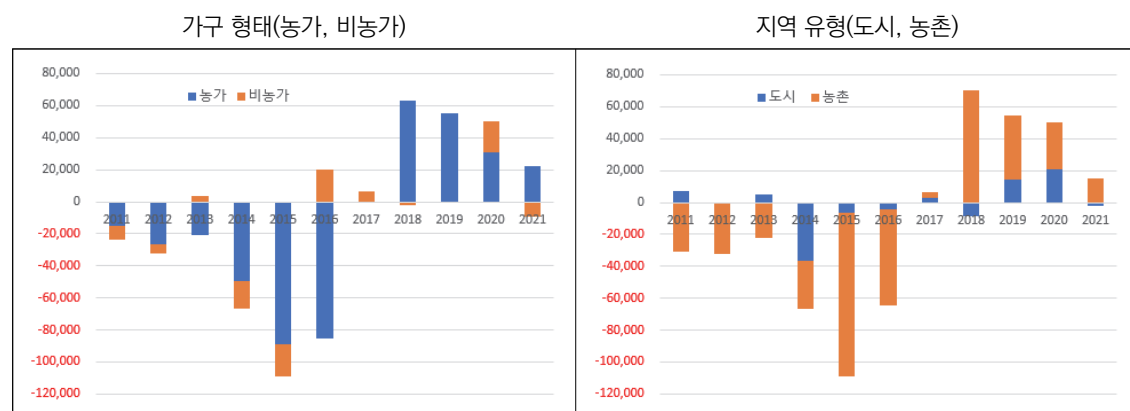
단위: 천 명

연도	가구 형태		지역 유형		전체
	농가	비농가	도시	농촌	
2010	1,355	232	312	1,274	1,586
2011	1,339	223	319	1,244	1,563
2012	1,313	218	318	1,212	1,531
2013	1,292	221	323	1,190	1,513
2014	1,242	204	286	1,160	1,446
2015	1,154	184	280	1,058	1,337
2016	1,068	204	276	997	1,273
2017	1,068	211	278	1,000	1,279
2018	1,132	209	270	1,071	1,340
2019	1,187	208	284	1,111	1,395
2020	1,218	227	305	1,140	1,445
2021	1,240	218	303	1,156	1,458

자료: 통계청(각 연도). 경제활동인구조사.

〈그림 7〉 농림어업 취업자 가구 형태·지역 유형별 전년 대비 변화: 2011~2021

단위: 명



자료: 통계청(각 연도). 경제활동인구조사.

### 제조업, 서비스업 등 비농림어업 분야 노동 수요는 증가한 반면 농림어업 분야 노동 수요는 감소

- 농림어업 취업자 증감에 대한 타 산업 고용 및 인구 요인의 영향을 제거하고자 취업자 증감을 산업별로 인구수 및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하는 노동 공급 부문과 노동 수요 부문으로 분해(분해 방식은 아래 박스 참조)하여 분석함(산업별 취업자 수 증감=노동 수요(고용률 변화)+노동 공급(인구비율 변화+인구수 변화))

#### 고용변화요인 분해 방식

특정 시점  $t$ 의 취업자 수( $E_t$ )는 성·연령대별 취업자( $E_{j,t}$ )의 합이며, 성·연령대별 취업자는 고용률, 인구비율 및 전체 생산가능 인구(15세 이상)의 곱임.

$$E_t = \sum_j E_{j,t} = \sum_j er_{j,t} \times p_{j,t} \times p_t$$

- $j$ 는 성별 13개 연령집단(15~20세, ..., 70~74세, 75세 이상)
- $er_j$ 는 성·연령대별 고용률로, 성·연령대별 취업자( $E_{j,t}$ )를 성·연령대별 인구로 나눈 값
- $p_t$ 는 해당 시점의 생산가능 인구수
- $p_j$ 는 성·연령대별 인구비율로, 성·연령대별 인구를 15세 이상 인구( $p$ )로 나눈 값

두 시점( $t > s$ ) 간 취업자 변화( $\Delta E_t$ )는 성·연령대별 고용률( $er_j$ ), 성·연령대별 인구비율( $p_j$ ) 및 전체 생산가능 인구수( $p$ ) 변화로 분해됨.

$$\begin{aligned} \Delta E_t &= E_t - E_s \\ &= \sum_j er_{j,t} p_{j,t} p_t - \sum_j er_{j,s} p_{j,s} p_s \\ &= \sum_j \Delta er_{j,t} p_{j,t} p_t + \sum_j er_{j,s} \Delta p_{j,t} p_t + \sum_j er_{j,s} p_{j,s} \Delta p_t \\ &\quad \text{(고용률 변화)} \quad \text{(인구비율 변화)} \quad \text{(인구수 변화)} \end{aligned}$$

- 성·연령대별 특정 산업의 취업자( $E_{i,j,t}$ )를 성·연령대별 인구로 나눈 값을 성·연령대별 산업 고용률( $er_{i,j}$ )로 정의하면, 산업( $i$ )별 취업자 증감 분해가 가능

$$\Delta E_{i,t} = \sum_j \Delta er_{i,j,t} p_{j,t} p_t + \sum_j er_{i,j,s} \Delta p_{j,t} p_t + \sum_j er_{i,j,s} p_{j,s} \Delta p_t$$

자료: 정대희·김지운(2017). "최근 취업자 증감에 대한 분석 및 향후전망." 『KDI경제전망』(2017 하반기).

- 인구 요인(생산가능 인구변화, 연령대별 인구비율)의 영향을 배제하고 농림어업 분야의 노동 수요를 분석한 결과, 2020년에는 코로나19 위기 속에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노동 수요 감소가 큰 반면, 농림어업 분야는 2018년 이후 3년 연속으로 노동 수요가 증가했었지만, 2021년에는 타 산업분야와 달리 농림어업 분야의 노동 수요가 감소함(표 4), <그림 8>.
- 2011년 이후 노동 수요와 공급의 변화를 보면 노동 공급 요인은 농림어업 취업자 증감에 지속적으로 양(+)의 영향을 주고 있고, 노동 수요 요인은 2017년까지는 음(-)의 영향을 주다가, 2018년 이후 2020년까지 3년간 양의 영향을 주는 쪽으로 흐름이 바뀌었었는데 2021년에는 다시 음의 영향으로 바뀌었음(농림어업 노동 수요 2018년 +19천 명 → 2019년 +10천 명 → 2020년 +2천 명 → 2021년 -40천 명).



- 비농림어업 분야의 경우 최근 노동 수요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제조업의 경우 2020년 -55천 명이던 노동 수요가 2021년 +5천 명으로, 서비스업의 경우는 동일기간 -304천 명이던 것이 +263천 명으로 변화됨.

〈표 4〉 주요 산업부문별 취업자 증감 분해 결과: 2011~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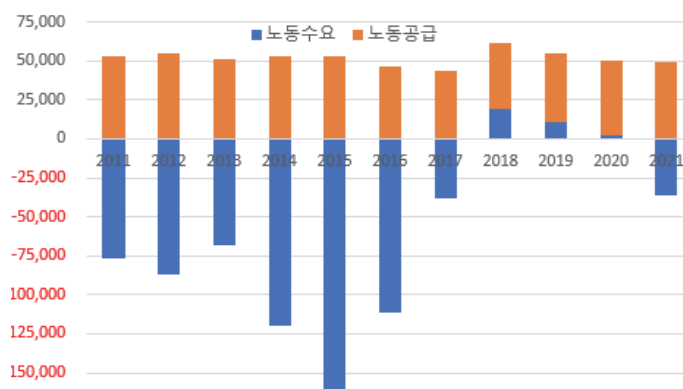
단위: 천 명

연도	농림어업				제조업				서비스업			
	취업자 증감	노동 수요 고용률 변화	노동 공급 인구비율 변화	인구수 변화	취업자 증감	노동 수요 고용률 변화	노동 공급 인구비율 변화	인구수 변화	취업자 증감	노동 수요 고용률 변화	노동 공급 인구비율 변화	인구수 변화
2011	-23.6	-76.4	30.9	21.9	78.0	48.1	-26.2	56.2	443.5	254.0	-63.4	252.8
2012	-32.2	-87.1	37.2	17.7	14.4	-1.0	-31.7	47.2	448.4	313.8	-78.6	213.2
2013	-17.4	-68.2	34.5	16.3	70.4	54.4	-28.6	44.5	290.4	153.8	-69.0	205.5
2014	-67.0	-119.8	35.3	17.6	158.6	133.5	-24.2	49.3	508.9	326.0	-44.0	226.8
2015	-108.7	-161.7	38.0	15.0	204.9	192.2	-32.9	45.7	184.2	37.7	-61.5	208.0
2016	-64.9	-111.2	34.9	11.3	-20.8	-22.2	-37.6	39.0	311.7	204.1	-63.8	171.4
2017	6.1	-37.6	34.3	9.5	-17.5	-25.3	-26.3	34.1	323.5	223.5	-52.9	152.9
2018	61.5	18.8	35.4	7.3	-56.3	-62.4	-20.0	26.2	95.7	-2.7	-21.1	119.5
2019	54.7	10.5	34.5	9.8	-80.8	-91.2	-22.4	32.8	331.1	215.5	-36.9	152.5
2020	50.2	2.3	39.1	8.8	-53.2	-54.6	-26.6	28.0	-213.7	-304.3	-44.0	134.6
2021	13.2	-36.3	39.9	9.5	3.7	4.6	-29.7	28.8	364.5	262.6	-36.8	138.8

자료: 통계청(각 연도). 경제활동인구조사.

〈그림 8〉 농림어업 분야 노동 수요와 노동 공급 변화(전년 동기 대비): 2011~2021

단위: 명



자료: 통계청(각 연도). 경제활동인구조사.

##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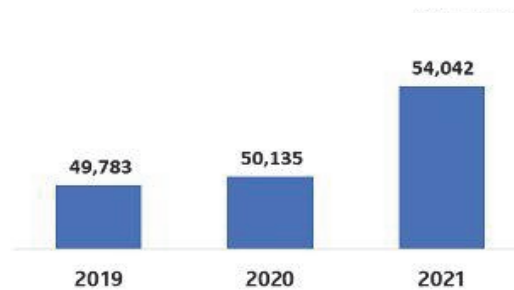
## 2021 농림어업 고용변화 시사점

## 노동시장에서 농림어업 분야보다 비농림어업 분야 선택이 증가

- 농림어업 분야 노동 수요의 감소는 절대적 감소라기보다는 타 산업 대비 상대적 감소라 추정됨.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연초에 발표한 2021년 농업 생산액을 보면 2020년보다 7.8% 증가한 54조 420억 원으로 잠정 집계됨(재배업 생산액은 2.7% 증가했고, 축잡업 생산액은 15.3% 늘어남)(그림 9). 한편 농업분야 고용인력 문제 관련 최근 연구(엄진영 외 2020)에 따르면 농가의 60% 이상이 농업 노동력 부족을 호소하고 있음. 이처럼 농업생산 증가 및 농가의 고질적인 인력 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농림어업 노동 수요 감소가 나타난 것은 농업 생산성(토지, 노동, 자본) 증가 요인도 있지만, 비농림어업 분야 대비 상대적 노동 선택이 감소한 것이 더 크게 작용한 것으로 추정됨.

〈그림 9〉 농업생산액 추이: 2019~2021

단위: 십억 원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2). 『농업전망 2022』.

- 즉, 한정된 노동 시장에서 농림어업과 비농림어업 분야에 노동 선택 경쟁이 벌어진 상황에서 비농림어업 분야(제조업, 서비스업)의 노동 수요 증가로 인해 농림어업 분야 노동 선택이 감소한 것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농림어업 분야 종사자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노동 이동이 자유로운 무급가족종사자 및 임금근로자가 감소하고(그림 6), 농가, 농어촌 취업자는 증가한 반면, 비농가, 도시 취업자는 감소한 것도 이를 뒷받침하는 현상임(그림 7).

- 또한 농가 인구 중에서도 비교적 노동 이동이 자유로운 자녀 세대의 농림어업 종사가 감소하고, 비농림어업 종사가 증가한 것 역시 이러한 추정을 뒷받침함. 농가 내 가족관계별 종사 산업분야를 보면 전년 대비 자녀 세대의 농림어업 종사자가 8천 명이 감소하고, 제조업·서비스업 종사가 1.3만 명이 증가함(표 5).

〈표 5〉 농가인구의 가족관계별 종사분야 전년 대비 변화: 2021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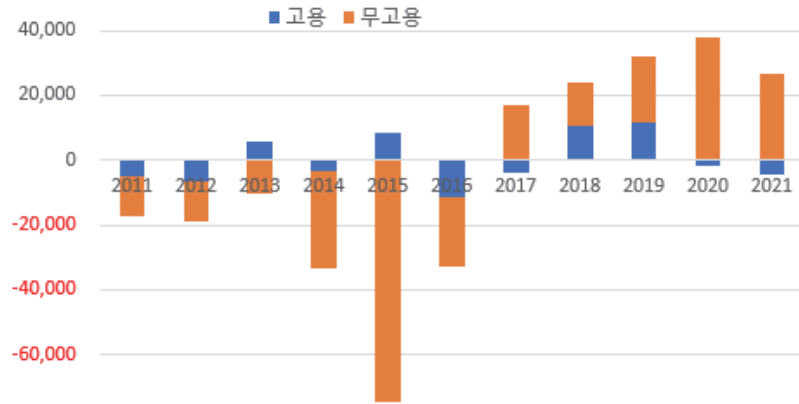
가족관계	종사분야(산업)			전체
	농림어업	제조업	서비스업	
가구주	30,968	10,561	-6,109	35,420
배우자	25,723	-2,714	8,424	31,433
자녀	-8,241	1,783	11,599	5,141
부모	-53	836	-2,019	-1,236
형제자매	3,230	290	-515	3,005
기타	143	-37	-706	-600
전체	51,770	10,719	10,674	73,163

자료: 통계청(2021). 경제활동인구조사.

### 농림어업 분야 노동 공급이 경영주 자가노동, 비상용 근로자 중심으로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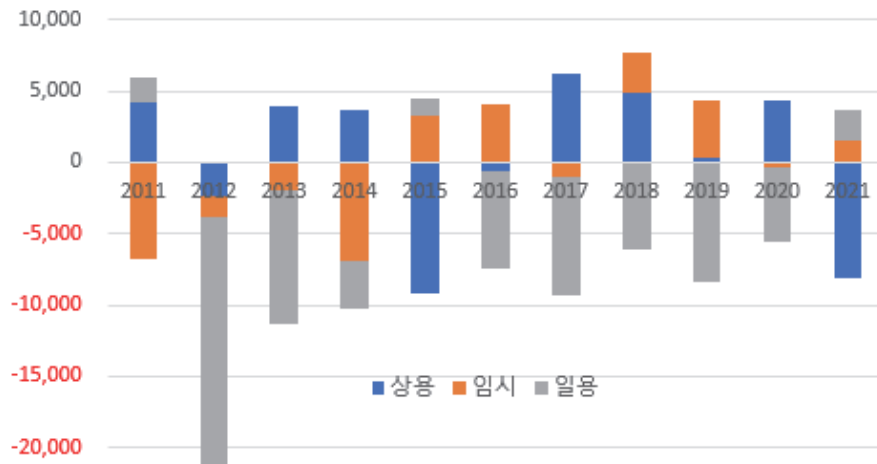
- 2년간 지속된 코로나19 위기, 비농림어업 분야 고용의 상황 호전으로 노동시장에서 비농림어업 분야 선택이 활성화된 상황에서 농림어업 분야의 노동 공급이 경영주의 자가노동, 비상용 근로자 중심으로 바뀌고 있음.
- 지난해 농림어업 취업자가 증가한 것은 고용 없는 농림어업 경영주와 비상용 근로자 증가가 있었기 때문인데, 전년 대비 고용 경영주는 4.3천 명, 상용근로자는 8천 명 감소한 반면, 무고용 경영주는 26.8천 명, 임시·일용 근로자는 3.7천 명 증가하였음. 이는 작년 한 해 비농림어업 분야 취업 활성화 됨에 따라 농림어업 분야 노동 공급이 경영주 중심의 자가노동 및 임시, 일용 등 비상용 근로자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의미함(그림 10), (그림 11).
- 코로나19 위기 장기화로 농림어업 분야 외국인 노동자 공급도 출입국 제한으로 인해 고용허가제, 계절근로자제와 같은 공식 라인보다는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를 통한 비공식 라인의 노동 공급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엄진영 외 2020)이 계속되고 있는 데에서도 이러한 농림어업 노동 공급 변화의 원인을 일부 찾을 수 있음.

<그림 10> 경영주 유형별 농림어업 취업자 전년 대비 변화: 2011~2021



자료: 통계청(각 연도). 경제활동인구조사.

<그림 11> 임금근로자 유형별 농림어업 취업자 전년 대비 변화: 2011~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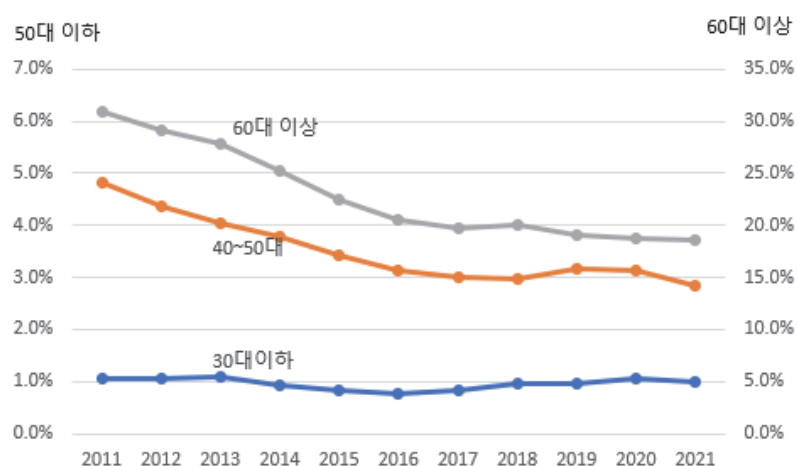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각 연도). 경제활동인구조사.

**50대 이하 농림어업 취업자는 동일 연령대 전체 인구 감소로 향후에도 감소할 전망**

- 30대 이하 청년층 그리고 40~50대 농림어업 취업자 감소는 비농림어업 분야 노동 수요 증가도 있지만 해당 연령대의 인구 감소 영향이 가장 큼. 전체 취업자 대비 연령대별 농림어업 취업자 비율을 보면 30대 이하의 경우 2021년 1.0%로 지난해(1.1%)에 비해 큰 변화가 없는 상황이고, 40~50대의 경우 2.8%로 2020년(3.1%)에 비해 소폭 하락한 상황. 절대수치가 상승한 60대 이상도 전체 취업자 대비해서 보면 2021년 18.6%로 전년(18.8%)에 비해 소폭 하락함<그림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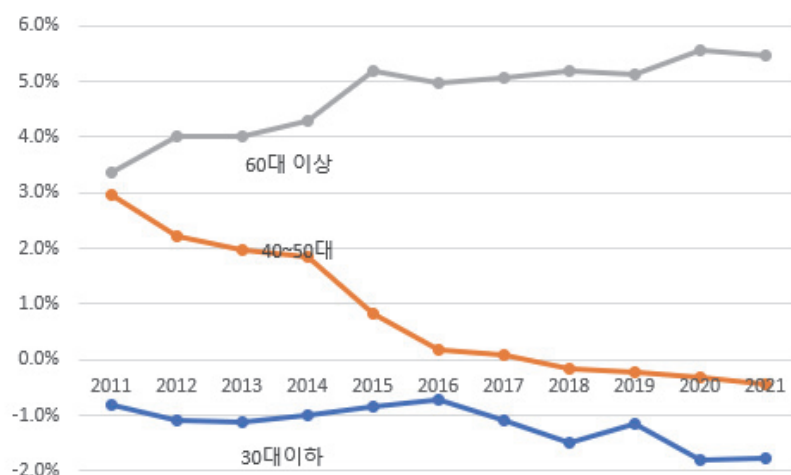
〈그림 12〉 연령대별 전체 취업자 대비 농림어업 취업자 비율: 2011~2021



자료: 통계청(각 연도). 경제활동인구조사.

- 반면 인구 고령화에 따라 60대 이상을 제외하고 50대 이하 생산인구(경제활동인구+비경제활동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그림 13). 2020년 대비 2021년 30대 인구는 28.5만 명(전년 대비 -1.8%), 40~50대는 7.2만 명(전년 대비 -0.4%)이 감소한 데 비해 60대 이상은 65.2만 명이 증가(전년 대비 +5.5%).
- 40~50대 인구는 2018년 이후, 30대 이하는 2011년 이후 계속 하락하고 있어, 향후에도 이러한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으로 50대 이하 농림어업 취업자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할 가능성이 큼.

〈그림 13〉 연령대별 인구의 연간 변화율: 2011~2021



자료: 통계청(각 연도). 경제활동인구조사.

### 농림어업 노동의 질적 제고 및 농림어업 산업 특성을 반영한 노동 수급 정책 수립이 필요

- 2021년 농림어업 고용동향의 분석 결과는 최근 5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질적으로는 악화되는 상황임. 고령층과 비상용 근로자가 증가하고, 청년 및 중년층과 상용 근로자는 감소하는 추세임. 향후 비농림어업 분야 고용 사정에 따라 다소 달라질 수 있지만,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로 이러한 추세는 유지될 가능성이 높음. 이에 따라 농림어업 분야 인력 부족 및 비숙련 종사자 중심의 노동 공급 문제는 더욱 심화될 전망.
- 산업 전반으로 생산 연령 인구 감소로 인해 경제 성장이 지체되는 인구 오너스(Demographic Onus) 상황에서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기인한 디지털 전환시대에 대응하여, 향후 농림어업 분야는 청년 농림어업인의 유입 촉진과 더불어 숙련된 양질의 농림어업 노동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가 농림어업 노동 분야의 숙제라 할 수 있음.
- 이 글에서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를 토대로 고용 상황을 분석하였기에 농림어업 분야 노동 수급에 대한 정밀한 분석에는 한계가 있음. 농림어업은 산업적으로는 농업 생산뿐 아니라, 농수산물 가공·유통·서비스 등 2·3차 산업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 인력이 종사하고 있음.<sup>1)</sup> 생산분야에 국한되어 농림어업 분야 고용 실태를 보여주는 경제활동인구조사로는 농림어업의 정확한 인력 수급 상황을 파악할 수 없음. 추후에는 농림어업 산업 특성을 반영한 고용실태조사를 토대로 노동 수급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1) 마상진 외(2019)의 연구에서 농업 및 농업 연관산업(식품, 투입재, 비식품가공, 외식, 유통, 서비스 및 지식 산업 등 포함) 종사자를 관련 통계(산업연관표, 사업체조사) 분석을 통해 파악한 결과, 2019년 기준 5,173천 명으로 생산 이외 분야에 74.3%가 종사를 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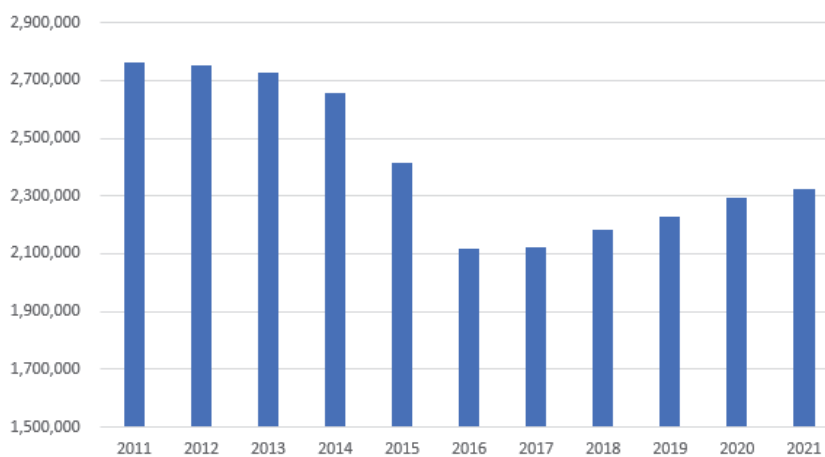
## 부록

### 농가의 경제활동실태: 2011~2021

#### 농가 인구는 2017년 이후 증가 추세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기준으로 보면, 농림어업 취업자와 더불어 농가 인구 역시 2017년 이후 5년 연속 증가 추세에 있음. 지난 10여 년간의 농가 인구 변화를 보면 2011년 276.1만 명이던 것이 2016년 211.7만 명까지 감소하였다가, 2017년 212.2만 명으로 증가한 이후 계속 증가하여 2021년에는 232.6만 명까지 증가함(2021년 전년 대비 3.4만 명 증가).

#### 〈부도 1〉 농가 인구의 변화: 2011~2021



자료: 통계청(각 연도). 경제활동인구조사.

#### 농가 인구 중 취업자 증가 및 농림어업 종사 비율 증가

- 농가 인구 중 취업자 비율은 최근 계속 상승세이고 비경제활동 인구 비율도 감소세임. 농가 인구 중 취업자는 2015년 73.2%였는데, 이후 계속 상승하여 2021년에는 76.2%를 나타냄. 반면 비경제활동 인구는 동일 기간 25.6%에서 22.8%로 감소함. 농가 인구 중에 농림어업 취업자 비율은 2015년 47.8%에서 2021년 53.3%로 상승함.

〈부표 1〉 농가인구의 경제활동 상태: 2015~2021

단위: 명, (%)

가족관계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	전체
	농림어업	제조업	서비스업	취업자 전체			
2015	1,153,574 (47.8)	114,333 (4.7)	499,218 (20.7)	1,767,125 (73.2)	27,553 (1.1)	618,995 (25.6)	2,413,673 (100.0)
2016	1,068,470 (50.5)	85,514 (4.0)	425,169 (20.1)	1,579,155 (74.6)	17,709 (0.8)	520,238 (24.6)	2,117,102 (100.0)
2017	1,068,097 (50.3)	80,620 (3.8)	423,072 (19.9)	1,571,790 (74.0)	21,025 (1.0)	529,833 (25.0)	2,122,648 (100.0)
2018	1,131,531 (51.8)	84,550 (3.9)	429,392 (19.7)	1,645,475 (75.3)	19,866 (0.9)	518,777 (23.8)	2,184,118 (100.0)
2019	1,186,848 (53.3)	76,256 (3.4)	434,361 (19.5)	1,697,463 (76.3)	19,760 (0.9)	508,919 (22.9)	2,226,142 (100.0)
2020	1,217,817 (53.1)	86,818 (3.8)	428,253 (18.7)	1,732,889 (75.6)	24,581 (1.1)	534,516 (23.3)	2,291,986 (100.0)
2021	1,239,997 (53.3)	88,799 (3.8)	443,247 (19.1)	1,772,042 (76.2)	22,627 (1.0)	530,837 (22.8)	2,325,506 (100.0)

자료: 통계청(각 연도). 경제활동인구조사.



---

## 참고문헌

- 마상진·엄진영·김태후·박진우. 2019. 『농업분야 고용동향 분석 및 일자리 확대 방안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농림축산식품부.
- 엄진영·박대식·조승연·김윤진·이창원·최서리·신예진·이상지. 2020. 『농업 고용환경 변화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 활용 정책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정대희·김지운. 2017. “최근 취업자 증감에 대한 분석 및 향후전망.” 『KDI경제전망』(2017 하반기).
- 통계청. 2000~2021. 경제활동인구조사.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2. 『농업전망 2022』.

# KREI 현안분석

감 수	박시현 명예선임연구위원	061-820-2343	shpark@krei.re.kr
내 용 문 의	마상진 선임연구위원	061-820-2258	msj@krei.re.kr
발간물문의	유정인 선임전문원	061-820-2282	edela@krei.re.kr

※ 「KREI 현안분석」은 농업·농촌의 주요 동향 및 정책 이슈를 분석하여 간략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 이 자료는 우리 연구원 홈페이지([www.krei.re.kr](http://www.krei.re.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KREI 현안분석 제88호

## 2021 농림어업 고용 동향과 시사점

등 록 제6-0007호(1979. 5. 25.)  
발 행 2022. 3.  
발 행 인 김홍상  
발 행 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우) 58321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01  
대표전화 1833-5500  
인 쇄 처 (주)에이치에이엔컴퍼니  
I S S N 2672-0159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